



국산 CTP세터 공급에 자부심 제조사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대정인터내셔널(대표 송갑선)의 임직원들은 누구보다도 바쁜 하반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5월 국산 UV CTP세터인 '프리즘'을 개발한 아주하이텍과 전면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총판계약식을 체결한 이래 고객들로부터 꾸준하게 주문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CTP세터 분야에서 유일한 국내기업이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이에 걸맞은 장비 생산과 현장에서의 빠른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바쁜 일정을 지내고 있기 때문이다.

글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1호기 설치 완료, 4호기까지 계약 마쳐

송 사장은 이미 총무로에 위치한 진솔CTP에 국산CTP인 '프리즘' 1호기의 설치를 마친데 이어 4호기까지 계약이 완료되었다며 당초 올해 안에 목표한 20대 판매를 감안하면 다소 아쉬운 감이 없지 않지만, 많은 댓수의 장비를 파는 것보다는 어려가 없는 장비, 고객이 사용하면서 만족함을 느끼는 장비를 공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대정인터내셔널은 아주하이텍과의 합의를 통해 '2주간 자체 테스트'를 명문화하고 이를 통해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다 완벽한 장비를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는 양사의 최고경영자들이 오랜만에 다시 등장한 국산CTP세터가 두 번 다시 여러 문제로 시장의 외면을 받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었다. 자체 테스트 2주일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이런 결정이 가능했던 것은 오랫동안 인쇄 및 유관업계에 몸담아 온 경험이 있는 양사 경영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대정인터내셔널은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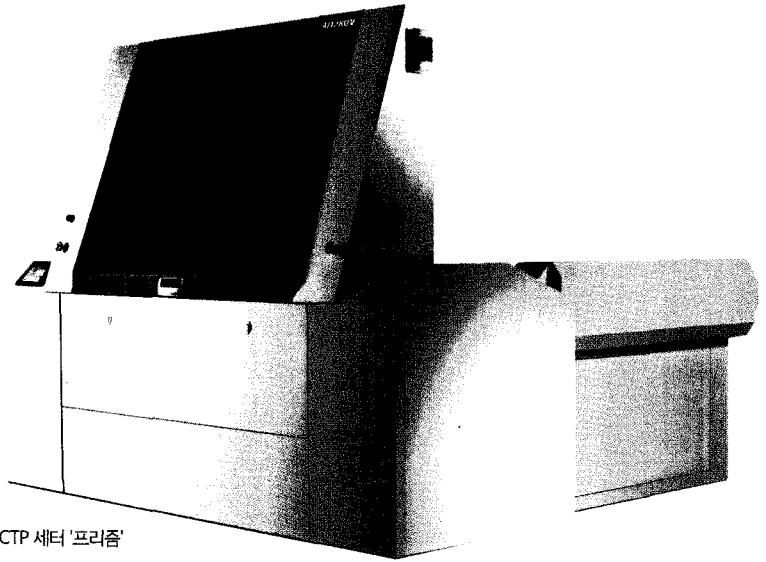
편견 뛰어넘어 소비자에 존재감 알릴 것

인쇄산업을 상징하는 인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주요 주변기기들도 유독 외국산의 강세가 두드러진 것이 인쇄 및 유관 업계가 처해있는 현실이었다. 물론 일부 중소형 장비에 있어서는 국산장비가 제작, 사용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대형장비의 경우에는 그 비중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대정인터내셔널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으며 인쇄산업면에서도 세계 10위권 내에 포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인쇄기는 아니더라도 주변기기로는 대형장비인 CTP세터 정도는 국산이 일정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CTP세터에서 중요한 '원천기술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는 아주하이텍이 생산을 담당하고 인쇄관련분야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있는 대정인터내셔널이 유통과 A/S를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하고 본격적인 CTP세터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기술적인 면에서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있었고 인쇄업체에서 요구하는 성능과 필요한 사양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기간 만에 국산 CTP세터인 '프리즘'을 선보일 수 있었다.

제품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고 나서 공개하고자 하는 일부의 의견도 없지 않았으나 제작과 유통, 고객관리의 모든 분야에서 이미 높은 수준에 올라있기 때문에 2%의 부족한 것은 실전을 통해 보완해나가도록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총판계약식을 체결하면서 언론에 '프리즘'을 공개하고, 1호기를 설치하여 데모장비를 선보이면서 시장에서 보인 반응은 "국산장비인데 믿을 수 있을까?", "외국산 장비에 비해 어느 정도 가격이 낮으냐?", "주변 장비와의 트러블은 없느냐?" 등이 주를 이뤘다. 모두 사전에 예상했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고 이에 대해 준비된 답변을 했다. "믿고 격려해 주십시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대정인터내셔널은 단기간에 이런 저런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외국산 장비에 비해 충분한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으며 또한 장기적인 목표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자신하는 '프리즘'

아주하이텍이 순수한 국산기술로 개발한 '프리즘'이 갖고 있는 장점은 다양한 라인업의 구성이다. 다양한 인쇄 작업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서멀세터는 830nm의 정밀도를 지니며 채널수는 80



UV-CTP 세터 '프리즘'

채널, 128채널, 192채널, 256채널로 다양해 경쟁사의 주력인 62채널에 비해 선택의 폭이 두드러지게 넓다. 이는 반도체와 관련한 뛰어난 고정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따른 것이며 UV 세터의 경우, 405nm의 정밀도를 갖고 있으며 80채널, 128채널, 192채널 및 256채널을 갖고 있다. UV CTP와 서멀 CTP의 2종류로 생산되고 있는 프리즘이 갖는 최대의 장점은 역시 다양한 판재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반PS판은 물론이고 다양한 브랜드를 사용해도 잘 어우러진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적극 홍보할 만도 하지만 대정인터내셔널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지금은 국산 CTP세터 제조와 공급이라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 판재를 강조하다 보면 마케팅에 있어 초점이 흐려질 수도 있다고 판단해 이를 잠시 미뤄둔 것일 뿐, 판재 공급과 관련하여 꼼꼼한 스케줄과 계획을 이미 완성도 높게 세워 두었다고 송 대표는 말한다.

진정한 국산장비로 시장 확대에 전력

대정인터내셔널은 7월 초까지 4호기까지 계약을 마쳤으며 연말까지는 당초 목표였던 20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이후에는 '프리즘'을 직접 사용한 고객들의 구전 마케팅을 통해 존재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장비의 공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선제적으로 A/S인력을 확충해 이를 대비하고 있다. 이는 '프리즘'의 성능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일 뿐 아니라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고객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동반자 정신'에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CTP세터와 함께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필수적인 장비인 출력기도 가급적이면 국산장비를 이용하는데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는 국산 장비인 '프리즘'과 함께 라인을 구축하는 주변장비들도 국산으로 구성, 실질적인 의미의 국산 CTP세터 라인으로 구축하겠다는 목표에 따른 것이다. 안타깝게도 아직 국산 주변장비들이 일부 아쉬운 점이 있어 전면적인 사용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목표로 이를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계획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대정인터내셔널은 단순한 국산 장비 생산, 유통에 머물지 않고 다른 국산 장비제조사의 성장도 돕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대정인터내셔널은 현재 아주하이텍과 전면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실질적으로 공동경영자라는 마음가짐으로 '프리즘'의 성공적인 시장진입과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그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

'프리즘'은 수직형 모델로 설치공간이 작다.

